

# “아직 안끝났다” 트럼프 불복...극심한 대선후유증 예고

### 120여년만에 승복 전통 깬 트럼프 바이든, “하나가 될 때” 화합 호소 법률 논쟁 넘어 지지층 충돌 우려도

미국의 11·3 대선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승리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불복하면서 극심한 대선후유증을 예고하고 있다. 대선이 새로운 리더십을 통해 미래의 비전을 만들기는커녕 오히려 사회 갈등을 극대화할 지지층 분열을 심화하며 당분간 미국을 극심한 혼돈 상태로 밀어 넣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바이든은 승리 확정 언론 보도 후 당선인 명의로 내놓은 첫 성명에서 “분노와 거친 수사를 뒤로하고 국가로서 하나가 될 때”라며 통합과 화합을 간곡히 호소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선거는 전혀 끝나지 않았다”며 바이든을 향해 “거짓 승자 행세를 한다”고 반발했다. 1896년 대선 이래 패자가 승복 메시지를 내오던 전통을 처음으로 깨고 불복 의사를 밝힌 것이다. 대권을 놓고 양보 없는 극한경쟁을 벌이더라도 결과가 나오면 승복하며 패배로 상처받은 지지층을 보듬어온 과정과는 정반대 행보인 셈이다.

당장 바이든으로선 트럼프의 불복이 이어질 경우

당선인 확정을 위한 관문을 넘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적법한 승자가 취임할 수 있도록 법원에서 소송 사건을 추진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소송 강령 의사를 재차 확인했다. 초반비 대결을 벌인 일부 경합주에서는 재검표가 불가피해 ‘포스트 대선 정국’이 원활한 정권 인계인수 과정이 아니라 개표 과정을 둘러싼 공방전으로 점철될 공산이 커졌다.

2000년 대선 때 플로리다 재검표 논란의 경우 연방대법원의 판결과 승복 선언으로 마무리될 때까지 대선일로부터 36일이 걸렸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집요한 소송전에 나설 경우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더욱이 트럼프 캠프의 선거대책본부장이 전국에

서 벌여질 시위나 집회에 지지층이 참여할 준비가 돼 있을 것을 촉구하고 소송에 필요한 모금을 독려했다는 보도까지 나온다. 재검표나 법률 논쟁 수준이 아니라 자칫 지지층 간 물리적 충돌 사태로 비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가뜩이나 미국은 선거로 인한 갈등이 아니더라도 상황이 녹록지 않다. 코로나19 사태로 확진자, 사망자 세계 1위라는 전염병 대유행을 겪고 있고, 경기침체의 늪에 빠져 경제적 어려움마저 커진 상황이다.

인종차별 혐의 시위 사태에서 보듯 인종 간 갈등도 해결 대상이다. 국제적으로 안보와 경제, 동맹과 적국을 가리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이 밀어붙인 미

국우선주의는 전통적 동맹관계를 훼손하고 미국의 국제사회 주도권을 약화했다는 평가가 많다.

바이든 후보로선 트럼프 대통령의 불복에서 비롯된 또 한 번의 일전이 불가피한 것은 물론 트럼프 지지층까지 깨안으며 통합을 일궈내고 당면 현안의 해법을 모색하는 이중 삼중의 과제에 직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로이터통신은 바이든 후보에 대해 “심각하게 양극화된 워싱턴에서 통치하는 매우 어려운 임무에 직면할 것 같다”고 평가했다. 뉴욕타임스도 바이든 당선인이 “치유와 통합의 메시지를 던지되 승리를 달성했지만 일련의 벅찬 위기에 직면한 채 워싱턴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 한국 “모든 성취 존경” “좋은 친구” 각별 북핵 비판하면서도 대화·포용 입장 견지

바이든과 한국

### 우호적 결의안 내교 수차례 방한 의원시절 한반도 성명 종종 발표

11·3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는 한국을 ‘헬맹’, ‘친구’라고 부르면서 각별한 마음을 종종 표시해왔다.

바이든 후보는 최근 연합뉴스 기고문에서 한미동맹을 “피로 맺어진 동맹”이라고 표현했다. 또 “한국 국민과, 한국이 전쟁 이후 성취한 모든 것에 대해 깊은 존경심을 갖고 있다”며 한국을 ‘한국의 기적’, ‘민주주의와 경제 강국의 모범’이라고 불렀다.

바이든 후보는 한국을 “좋은 친구”라며 친근감도 종종 표시했다. 그는 한국과 인연을 거론할 때 부통령 시절 부속실에 근무한 한국계 미국인 직원을 종종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바이든 후보는 상원 의원 시절 한국에 우호적인 의정활동도 했다. 그는 2002년 한인의 미국 이민 100주년 기념결의안이 상원에서 채택되는 과정을 도왔다. 그는 연합뉴스 기고문에서 “결의안 통과를 도운 것이 자랑스러웠다”며 “한국계 미국인은 한 세기 이상 미국을 강하게 만들었다”고 경의를 표했다.

2003년에는 한미동맹 50주년을 기념하고 한국의 이라크 파병에 대해 한국 정부에 사의를 표하는 결의안을 제안했다. 그는 2005년 11월 한국의 비자면제 프로그램 가입을 위한 노력을 촉구하는 서한을 국무장관에게 발송했다. “한국이 미국의 맹방인 만큼 일본을 포함해 27개국이 누리는 특혜와 비슷한 수준의 권리를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담았다.

바이든 후보는 수차례 한국을 방문했다. 그는 1998년 11월 상원 외교위 민주당측 간사 자격으로 1박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했고, 외교위원장 시절이던 2001년 8월 3명의 상원 의원과 함께 방한해

김대중 당시 대통령을 예방하고 한반도 정세를 논의했다.

2013년 12월에는 바락 오바마 행정부의 부통령 자격으로 한중일 3국 순방에 나서 한국을 2박3일간 찾았다. 당시 미국 부통령의 방한은 2004년 4월 닉 케네디 부통령 이후 9년여 만에 처음이었다.

2015년 10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방미했을 때는 부통령 관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했다. 2015년 7월에는 바이든의 부인이자 ‘세컨드 레이디’(부통령의 부인)였던 질 바이든 여사가 방한했다. 세컨드 레이디의 한국 방문은 바이든 여사가 처음이었다.

북한과 관련해서 핵무기 개발을 강력히 비판하면서도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대표적인 것이 2005년 상원 외교위에서 열린 북핵 청문회 때 발언이다.

바이든 후보는 당시 공화당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비판하면서 북핵 해결을 위해 ▲고위급 특별사절 임명 ▲북한 핵 프로그램 제거를 최우선 목표로 노력 집중 ▲북한의 체제 변경 정책 포기 등 3대 원칙을 제시했다.

북한의 핵개발 저지를 공언하면서도 정권교체와 같은 ‘레짐 체인지’를 추진해선 안된다고, 대신 대화를 통해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뜻을 담은 것으로 해석된다.

또 2000년 6월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첫 남북 정상회담 때 포용정책의 승리라며 이를 지지하는 내용의 언론 보도문을 냈다. 2006년 10월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했을 때 이를 강력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바이든 후보는 북한의 핵 포기를 강조하는 원칙적 입장을 견지하다 보니 북한으로부터 강한 비난을 받기도 했다.

다만 그는 지난달 22일 대선후보 TV토론 때 핵 능력 축소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김 위원장을 만날 수 있다고 말해 실질적 성과를 담보할 수 있다면 북미 정상회담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연합뉴스



7일(현지시간) 오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승리를 선언하는 연설을 하는 동안 뉴욕 타임스 스퀘어에 모여든 지지자들이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의 승리를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 휴수저 출신... ‘대권 3수’ 끝에 백악관 입성

### 상원의원 36년·부통령 8년 관록...존 F 케네디 보며 대망 키워

바이든 누구인가

상원의원 36년, 부통령 8년에 이어 대통령까지. 대선 승리로 제46대 미국 대통령에 오르게 된 조 바이든 대선후보는 반세기 동안 궁적 생활을 해온 민주당의 대표적 정치인이다. 그는 풍부한 경험과 대중적 인지도를 기반으로 ‘대권 3수’ 끝에 마침내 백악관의 주인이 됐다.

◇ 존 F 케네디 보며 꿈 키운 ‘휴수저’ 출신=1942년 11월 20일 펜실베이니아주 스크랜턴에서 태어난 그는 올해 77세로, 내년 1월 대통령으로 취임하면 취임식 기준으로 미 역사상 역대 최고령(78세)

대통령이 된다. 종전 기록은 70세 7개월이 되는 달에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한 트럼프 대통령이다.

자동차 영업사원인 아버지와 전업주부인 어머니 사이에서 4남매 중 첫째로 태어났다. 스스로 낙담하지 않은 집안 환경에서 시작했다고 표현하는 이른바 ‘휴수저’ 출신이다. 어릴 때 펜실베이니아에서 자랐지만, 10살 때 부친이 실직해 인근 델라웨어주로 이주하면서 델라웨어가 ‘제2의 고향’이 됐다. 바이든 후보는 델라웨어에서 역사학과 정치학을 복수 전공했고 이후 시러큐스대 로스쿨에 진학해 졸업한 뒤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다.

◇ 20대에 상원의원 당선에서 최고령 대권 고지

까지=그는 변호사로 활동하다 1970년 뉴캐슬 카운티 의원으로 정치에 발을 들였다. 이후 1972년(만 29세) 델라웨어주 연방 상원의원에 도전해 공화당 현역 의원을 꺾고 당선됐다. 미 역사상 5번째로 젊은 나이에 당선된 것이지 현대 미국에서는 최연소 기록이었다. 이듬해 1월 30세의 나이로 의정 활동을 시작했다.

바이든은 내리 6선을 기록하며 36년간 활동했다. 대권 도전은 이번이 3번째다. 1988년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섰지만, 논문 표절 의혹으로 낙마했고, 2008년 다시 당내 경선에 나섰지만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돌풍에 밀려 좌절됐다. 그러나 외교정책 분야를 중심으로 한 실력을 인정받아 오바마 대통령의 러닝메이트가 돼 당시 행정부에서 8년 간 부통령을 지냈다. 그는 2016년 대선을 앞두고 출마를 준비했지만 2015년 장남 보 바이든이 뇌암으로 사망하자 슬픔에 빠져 결국 출마의 뜻을 접었다. /연합뉴스

### 부동산 매각공고

1. 매각부동산의 표시

연번	매각 부동산	면적(㎡)	매각기준가(원)	입찰보증금(원) (매각기준가15%)	비 고
1	광주광역시 서구 광천동 52-13, 231-6, 231-7, 232-4, 232-5, 232-6, 113	6,745 (대지면적)	18,506,979,000	925,000,000	토지 7개 필지
2	광주광역시 서구 광천동 896, 2층 (209호 ~ 217호)	1,549.87 (계약면적)	6,137,100,000	307,000,000	주상복합건물(새마을레이스)내 상가 부가제외포괄가
3	전남 여수시 안산동 465-3 방송사옥(지상1층-지상4층)	2,054.1 (대지면적) 1,167.2 (건물면적)	5,039,847,000	252,000,000	동부방송본부 사옥 (토지 및 건물) 건물분부기세별도

2. 매각일정 안내

구 분	내 용	비 고
입찰 일시	2020년 11월 23일(월) 10:00~16:00	
입찰보증금	입찰 당일 각 건물 해당금액을 지정계좌로 납부 후 입금증 제출 입찰자 본인명의로 입금 (연번1번의 경우 예시 : 1-홍길동)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2020년 11월 30일(일)	
매매계약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5영업일 이내 계약금납부 및 매매계약 체결	입찰가의 10%
잔금납부	매매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잔금 납부	입찰가의 90%
기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입찰보증금 납부계좌 : 광주은행 130-107-301421 (주)광주방송</li> <li>우편입수(신자우편 포함)는 불가하며 접수처에 입찰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li> <li>입찰신청 전에 입찰을 위한 매입의향서 및 서약서를 접수처에 문의 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li> <li>입수처 : (주)광주방송 경영국 (전화 062-650-3052)</li> </ul>	

3. 입찰 유의사항

- 공통사항
  - 매각부동산의 표시 연번 1~연번 3까지 일괄 매각 또는 일부 매각이여 입찰가는 매각기준가에 이상 시 유효합니다. 입찰시 제출서류는 당사 소정 양식의 매입의향서, 서약서 및 입찰보증금 반환용 계좌 사본이며 매입의향서의 계약금 및 잔금납부 시기는 확정일자입니다. 자금조달 계획과 관련한 증명서류 제출시 구체적이고 유요한 자료(잔고증명 또는 금융기관 대출확약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은 각 건별로 각각 적용하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원금만 반환하고 잔치는 포함하지 않으며, 우선협상대상자의 입찰보증금은 반환하지 않고 계약시 계약금의 일부로 전환됩니다.
  -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지정된 입찰보증금 전액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 매도인은 입찰 참여자가 제출한 입찰서류 상의 매입금액(입찰금액), 자금조달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독자적인 판단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매매계약 체결 후 우선협상대상자는 약정된 기일에 매매대금 잔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매도인은 그와 동시에 매각 대상 자산의 소유권을 이전합니다. 우선협상대상자가 약정된 기일에 매매대금을 체결하지 않거나 매매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매도인에게 즉시 귀속되며,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는 별도 통보 없이 즉시 상실됩니다.
  - 매도인은 매각 대상 자산을 매매계약 체결일 현재의 상태로 매수인에게 매각하며, 매각 대상 자산의 물리적 하자 또는 포함하는 물리적 상태, 공부상의 기재와 실제 상태의 일치 여부에 관하여 진술보장을 제공하거나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매도인은 본권 거래와 관련한 일정 및 내용 등을 사전 통보 없이 변경,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 참여자가 제출한 매입의향서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입찰 절차를 다시 실시할 수 있습니다.
- 특이사항
  - 세면통배수 내 상가(연번 2) 매각의 경우 현재 매도인이 계약한 임대차계약을 승계하는 조건입니다.
  - 동부방송본부 사옥(연번 3) 매각의 경우 토지 및 건물 일괄매각이며, 옥상에 설치된 첩합 전자상대로 매각하며 동 첩합의 이동통신시설 임대차계약을 승계하는 조건입니다. 매도인이 사용하는 방송기자제를 제외한 방송기자제, 방송시설 및 전역설비(발전기 및 수전설비) 존재 상태로 매각합니다.

(주)광주방송 대표이사

### 합병으로 인한 채권자의 및 구주권 제출공고

주식회사 이지개발산업(갑)과 주식회사 만남의 광장(을)은 각각 2020년 11월 6일 임시주주총회의 결의로 “갑”을 “을”을 합병하여 그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을”을 흡수합병하여 그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존속하며 “을”은 해산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 게재일 익일부터 1개월 내에 관계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합병으로 인한 신주권요부를 위하여 “을”의 주주 및 절권자께서는 위의 기간 내에 “을”의 본점에 주권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11월 9일  
“갑” 주식회사 이지개발산업  
광주광역시 북구 경양로 107, 204호(산안동) 의왕 사내이사 박재근  
“을” 주식회사 만남의광장  
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진대로 79(소촌동) 사내이사 정명일

### 상속한정승인공고

· 피상속인 : 망 김성길(620401-XXXXXX)  
· 최후주조 : 광주 북구 설죽로217번길 28(용봉동)  
피상속인 망 김성길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광주가정법원 2020-단1250호로 신청하여 2020년 10월 27일 심판 인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반채권자 및 주주자는 공고일로부터 신고기간내에 채권 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이 지나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0년 11월 9일  
· 상속인 : 1. 김근희(911124-X-XXXXXX) 전남 고흥군 도양읍 천마로 163 102동 1003호(영보 이그리아파트)  
2. 김광영(951028-XXXXXX) 인천 부평구 경민대로1367번길 26-11 703호(부평동, 헤르만하우스)  
· 신고기간 : 2020. 11. 9 ~ 2021. 1. 18.  
· 채권신고주소 : 상속인 1. 김근희의 주소

### 산행안내

11월22일(일)  
▲광주자연보전당사회 11월22일(일) 연석산-운장산(전북 완주), 염주체육관 06:40, 무등경기장 07:00, 동광주체육관 07:20  
\*다음카페 광주자연보전당사회 ☎ 010 3666 3291, 010 2663 0304

##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8년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에냥**

광고문의 (062) 227-9600 | 신문구독 (062) 220-0551 | 예향구독 (062) 220-0550